

책 읽는 상하이 155

# 나무야 나무야

국토와 역사의 뒤편에서 띄우는 엽서



| 1996 9

살다 보면 가끔 괜찮다는 다독임보다 따끔한 한마디가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다. 나는 그 위로를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에서 찾았다.

이 책은 신영복 선생님이 20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특별 가석방된 후 8년 만에 출판한 책이라고 한다. 글의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러한 주제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연이 깃든 곳을 직접 찾아가면서 적어간 25편의 글이다. 중간중간 신영복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과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는데, 그분의 글과 그림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야 나무야>는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이로, 산과 물을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되어있다. 시대의 모순을 고뇌하고 현실의 추한 구석을 쿡쿡 찌르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진지한 애정과 성찰을 담고 있었다. 내 생각 너머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멋진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머리’의 조화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개인적으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이성은 비정한 것이 되고 이성이 없는 사랑은 몽매한 탐닉이 됩니다.” (원문 중)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가슴이 좀 더 넓어지고 호흡이 좀 더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결코 느긋하게 살아도 돼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어른의 호통으로 들렸다. 아이러니하게 그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다.

전편을 통틀어 나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이야기를 꼽으라면 아마 이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피를 팔아 그 돈으로 동생들의 끼니를 사 집에 들어가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어둡새벽 대학병원 수도꼭지에서 양껏 찬물을 들이키는 친구, 물을 타서 좀 더 많은 피를 팔려고 했던 친구. 그는 그가 들이킨 물이 곧장 혈관으로 들어가 물 탄 피를 팔았다는 양심의 가책을 애써 숨기려 하였다. 도살장에서 소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물을 들이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량상품을 만들어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자기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당당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설령 그가 들이킨 새벽 찬물이 곧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그의 피를 함량미달의 불량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얻은 부당이익의 용도를 알기 때문입니다.”(원문 중)

“없이 사는 사람들의 (영리하지 못한) 외형이 파렴치하고 거친 부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픈 가책에 대해서도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비좁은 사실로부터 좀 더 넓혀진 진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믿고 있던 삶의 기준이나 좋아라 꼽는 가치들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알게 된다.

삭막해져가는 현실 속 일상에 정신적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음으로 느끼는 안도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성공’도 있음에 위로를 받는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어른이 되어야지 생각하게 되는 하루다.

히스토리 in 상하이

#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려서 동네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즐겨 하던 놀이 중에 손등에 모래를 잔뜩 올려놓고 탄탄하게 두드리다 손을 빼면 동그렇게 모래동굴이 만들어지던, 두꺼비 집 짓기 놀이가 있었다. 모래가 좀 축축하면 잘 뭉치기는 하는데 손을 빼 낼 때 무너지기 쉽고, 마른 모래는 뭉치지 않아 가지고 놀기가 쉽지 않았던 집 짓기 놀이. 맘에 들게 잘 만들어진 두꺼비 집을 누가 만지지 못하게 옮겨줄 수 없어 놀던 장소에 두고 안타깝게 집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다시 가서 보면 여지없이 무너져 있던 그 두꺼비 집이 요즘 생각이 많이 난다.



9 가

봉쇄 기간에도 어렵게 온라인 수업을 받고 중카오를 쳤는데 사실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중카오는 애증의 과정이다. 중고등부 국내부를 가기 위해선 시험이 늘 필요한데 중카오는 응시도 할 수 있고 교육국에서 시험 성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 학교 배정도 넉넉하게 잘 챙겨주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자이다. 만 18세가 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자가 학교마다 입장과 사정이 달라 모두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아이 때는 감사하게도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비자를 해결해 주셨다. 하지만 과정은 참 번거롭고 전교에서 유일한 외국인 학생을 위해 교장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 학교에선 이런 과정을 아예 모르거나 해주지 않는다는 곳이 당연하게 많아서 미리 알아보고 학교

를 선택해야 했다. 네 살 터울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나 싶은 과정이었다. 다행히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무사히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피로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깊다. 이번에 들어간 고등학교는 학교 교이래 국내부에 외국인 학생이 처음 들어와 굉장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붉은 돼지해에 태어나 소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서 피 터지게 경쟁해야 하는 2007년생이면서 2022년 중카오 수학문제 유출이라는 고비도 있었던 터라 외국학생의 로컬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서바이벌 그 자체였다. 사실 성적에 맞게 더 욕심나는 학교도 가고 싶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로컬 학생과의 경쟁에서 기회를 얻기가 다이어트 20kg 감량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마음을 내려 놓았다. 요즘은 입학 통지서도 어찌나 이쁘게 잘 만들던지. 귀티나는 입학 통지서를 받아 들고 둘째는 참으로 좋아한다. 자란 몸 사이즈에 맞게 교복을 주문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며 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를 기다리며 학교 교정에서 오랜만에 흠뻑새와 풀 냄새를 맡았다. 어려서 놀던 놀이터에도 풀도 꽃도 나무도 많았는데,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는 시간이 곱게 토닥이며 쌓아 놓았던 두꺼비 집 놀이 같았다. 주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 재밌게 만들고, 새로운 놀이를 하면 모래를 고르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 그런 듯하다. 그래서 놀면서 크다고 하나. 그 동안 온라인 수업이니 해서 정말 답답한 일상이었다. 제발 좀 9월엔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건강하게 하반기 볼 수 있길. 날씨도 선선해 동네 놀이터에 가서 두꺼비 집 지으며 주문을 외우고 싶을 정도이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제발 개학해서 학교 좀 가자.  
Betty(fish7173@naver.com)

 연세수학 

---

AP CALCULUS

---

AP STATISTICS


---

IB MATHEMATICS

---

한국수학 중고등부

※ 자세한 시간표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구베이 완커광장(북) 1803호 상암. 185 1214 1580  shysmath

 KAN ACADEMY 

"WE CARE!" 점수 나올 때까지 학습·연습합니다! 상세한 시간표 확인

## 칸아카데미가을 정규반

**[ SAT 실전반 ]**  
최고득점을 위한 레벨별 실전 연습 진행!

**[ 크리티컬 리딩 & 아카데미 라이팅 ]**

<p><b>I 프라이머, 인터반</b></p> <p>1 장편소설 + 단편소설 + 아티클 분석</p> <p>2 에세이 작성법</p> <p>3 문법 정리 완성</p> <p>4 어휘</p>	<p><b>I 펀더멘탈, 스타일반</b></p> <p>• 레벨별 고급 지문 분석 능력</p> <p>• 레벨별 에세이 작성 연습</p>
--	--

**[ 래프 선생님 ]**

- 프린스턴 화학 공학과 전공 • 성공관대 로스쿨
- 칸 아카데미 대학 컨설팅 전문
- 칸 아카데미 SAT, CR 대표 강사

**[ 재물 선생님 ]**

- 미국 Cheshire 보딩스쿨
- 영국 엑서터 대학 국제관계 경영학 전공
- 한 칸아카데미 아카데미 잉글리쉬 대표강사

**[ 예바 선생님 ]**

- 초중고 국제학교 • NYU 영어교육 학사
- 컬럼비아 대학교 영어교육 석사
- 뉴욕주 초중고 영어 교사 자격증
- 한 칸아카데미 주니어 대상 2019~2022년 진행중!

古北新区万科广场北楼804室 워렛 문의  shanghaiKAN